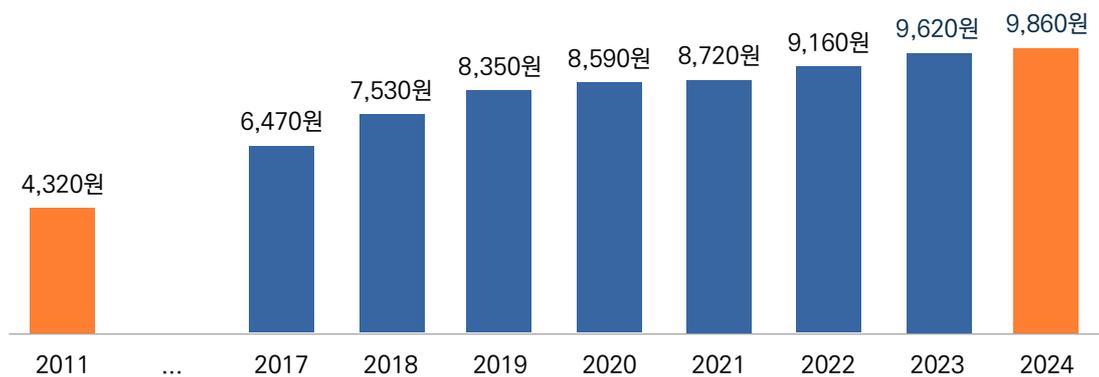




2024년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

- ▶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2024)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 2,060,74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어떤 변화를 거쳐왔을까? 12년 전인 2011년 4,320원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21년 8,720원, 2023년 현재 9,620원이다.
- ▶ 2017~2018년 사이 16%로 가장 인상률이 높은 반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 인상률이 가장 저조했다.

[그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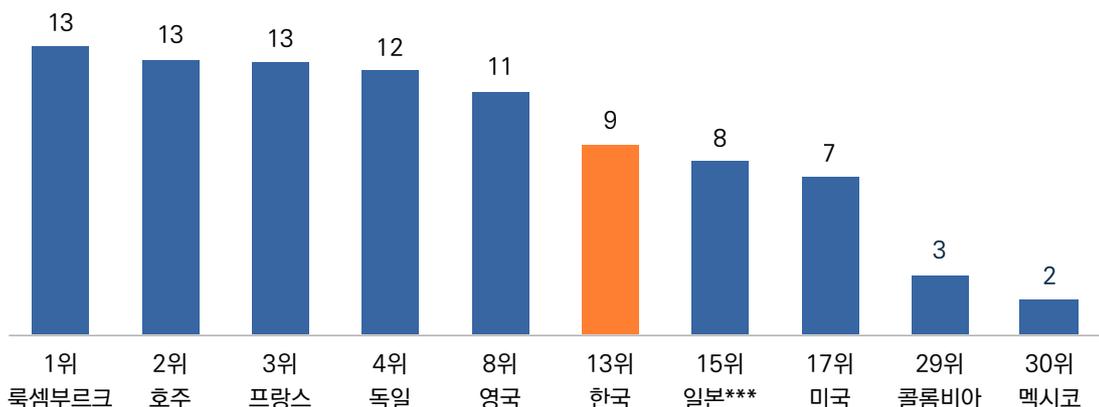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자료 참조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ref=timesnext>)

◎ 한국의 최저임금, OECD 30개국과 비교해 13위 수준!

- ▶ 그럼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일까? OECD에 등록된 실질적인 시간당 최저임금(각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USD로 환산한 수치로 절대적인 금액이 아님에 유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30개국 중 13위로 중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OECD 주요국의 실질 시간당 최저임금** (2021, US달러)



*자료 출처 : OECD 통계

**기준년도에 해당하는 각국의 구매력, 즉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공통 통화 단위(USD)로 변환한 수치

***2020년 기준